
대통령 담화(12.12.) 중 선관위 내용에 관한 설명자료

중앙선관위는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담화 중 선관위 관련 내용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□ 국정원의 전체 시스템·장비에 대한 점검 불응, 일부만 허용

▶ 중앙선관위, 국가정보원, 한국인터넷진흥원(이하 ‘합동 보안컨설팅 팀’)은 2023. 7. 3.부터 9. 22.까지 합동으로 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보안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. 당시 중앙선관위는 보유하고 있는 서버 중 미사용 장비를 제외한 전체 서버의 접근권한을 합동 보안컨설팅 팀에 부여하였습니다. 또한, 합동 보안컨설팅 팀이 점검 대상으로 요청한 업무용 PC를 전량 제공하였습니다.

□ 해킹시도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 가능하며 방화벽은 사실상 무용지물

▶ 합동 보안컨설팅 당시 중앙선관위는 국정원이 요청한 시스템 구성도, 정보자산 현황, 시스템 접속 관리자·테스트 계정을 사전에 제공하였으며, 침입탐지·차단 등 자체 보안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. 모의해킹은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되었으며,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 위원회의 방화벽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며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.

□ 비밀번호가 매우 단순

▶ 한 개 프로그램에서 비밀번호 운영 관련 미비점이 발견되었으나, 보안컨설팅 결과를 수용하여 즉시 변경하였습니다. 이후 모든 시스템의 비밀번호를 안전한 방식으로 변경하고 주요 시스템은 본인 인증을 포함한 다중 인증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.

□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부족한 회사

- ▶ 합동 보안컨설팅 당시 통합보안관제를 수행하던 업체는 보안관제전문기업, 정보보호전문서비스기업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자격을 모두 갖춘 정보보안 전문업체입니다.

□ '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개선 요구하였으나 개선 여부 알 수 없음

- ▶ 중앙선관위는 보안컨설팅 이후 이행추진TF를 구성하여 지적된 취약점을 대부분 조치하였으며,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(‘중앙선관위, 정보보안시스템 개선 종합대책 마련’ 2023. 11. 2. 제공)를 홈페이지 게시 및 배포하였습니다.

또한,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실시 전에 정당 참관인의 입회하에 2차례 국정원과 합동으로 이행 여부 현장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.

- ※ 1차 점검은 1. 23.부터 1. 31.까지, 2차 점검은 3. 19.에 시행하여 제22대 국선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(3. 21.) 전에 조치 결과 이행 여부 현장점검을 완료함

□ 선관위는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의 대상이 아님

- ▶ 선관위는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응하고 있으며, 과거 경력 채용 사건과 관련하여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.